

현자의 선택(3):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창세기 22:1-2, 9-13, 흠정역

1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 줄 산들 중의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9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덩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1.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신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늦게 얻은 약속의 아들을 희생 번제물로 태워서 바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다음 몇가지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이걸 좀 심한 요구가 아닌가요? 늦둥이 아들을 줄 때는 언제이고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말도 안되는 요구는 취소하시고, 좀 합당한 요구를 하시면 제가 곧바로 응답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 있는 사람을, 그것도 저에게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태워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잔인한 요구가 아닌가요? 부디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가능한 반응은,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셔서 인신 공양을 요구하십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 족속들이나 하던 짓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다.”

야세서[Book of Jasher]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 세이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 세이었으므로, 이삭 헌납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137 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린 아이도 아니고 30 대의 팔팔한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리아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결박한 것은 이삭의 전적인 동의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된 이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을 평생 충실히 따른 늙은이 아브라함과 그가 100 세 되어서야 얻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 이 두사람 부자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까요? 젊은 이삭은 번제를 위한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우리에게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는 주저 없이 대답했습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셔서 주신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그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니 나는 오직 기꺼이 아들을 바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 굳은 결심을 말 없이 아들에게 비쳤습니다.

한편으로 이삭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 백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아들인 나를 산 희생물로 바치려고 작정하신 아버지의 결심을 내가 순종으로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소명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다. 따라서, 나는 오늘 늙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희생물로 기꺼이 바쳐지리라. 이삭의 이러한 결심은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생긴 결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삭은 아버지 아르바람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서, 자신의 탄생을 어떻게 천사들이 미리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듣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순종하는 심령을 배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날 이 두사람이 믿음의 시험을 위한 희생의 행위를 통해 먼 훗날 갈보리 산위에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죽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1800 년 이전에 미리 경험함으로써 자기들 인생에서 인류구원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 믿음을 행위로 표현한 아브라함과 이삭

훗날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도 이 모리아산 사건에 관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안에서 가지는 의미를 상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6-9]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아직 차지하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이 유산으로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도성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미리 보고 그 복음 선포하심을 믿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의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설파합니다. 자신의 ‘한 사람’ 씨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이를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된 메시아가 자신을 속죄양으로 바칠 것임을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게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16]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받은 복음을 믿는 신앙을 어려서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생활로 표현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 희생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매우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바쳤으며, 동일한 복음을 받았던 청년 이삭도 이러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동참하여 자신을 제단 위에 스스로 놓아 묶임을 당함으로써, 먼 훗날 십자가까지 순종하실 메시아 예수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6-8]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런데 우리가 모리아산 사건에서 간과해서는 아닐 것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부활'입니다. 제단 위에 묶여서 이제 아버지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 번제물로 바쳐졌어야 할 이삭이 하나님의 천사의 정지하라는 부름으로 제단에서 풀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바칠 숫양 한마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징합니까? 이 양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연히 죽어야 했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1800 년 후에 모리아산 언저리 갈보리 언덕 위에서 자신들의 한사람 후손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양으로 바쳐질 것을 미리 본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영혼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6-9]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 위에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미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고 즐거워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후손 메시아의 날을 미리보고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56]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3. 아브라함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

3800 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복음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100 세가 되고 부인 사라가 90 세가 되어 가임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7 년 후에 이 약속의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발걸음에 동일한 순종의 심령으로 동참하여 자신을 제단위에 높히고 아버지가 늙은 손으로 자신을 제단에 묶는 동안 잠잠히 있었고,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그대로 누워 있어서 한 마리의 속죄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손해가 오거나, 불행이 오거나, 죽음이 오면 하나님께 크게 원망하고 자신의 불만과 원망을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이 내 경력상의 성공이나, 재물을 크게 늘일 기회이거나,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크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기회이거나, 명망 높은 집안의 사위나 며느리가 되는 기회 등, 내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크게 성취하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것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이런 태도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태도 간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세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심령 간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거리를 좁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우선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를 매일 실천하시기 권합니다. '나의 포부, 나의 고집, 나의 집념, 나의 자존심, 나의 기준,' 이런 모든 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의 미션, 성령님의 조용한 속삭임, 우리 주 예수님의 모범에 나타난 어린양의 심령과 목자의 표상,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불변하는 원칙들'을 앞세우는 훈련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노력하는 중에 우리는 그 거리가 점점 축소되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나의 사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무엇을 요구하시던지 기꺼이 바치리라는 아브라함의 심령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여러 모로 그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